Online Series

CO 09-41

최근 북한의 전술적 유화 공세와 정세 전망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월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 기본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임을 전제로 하여 한국, 미국 및 중국 등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화 정책의 가장 주요한 대상은 앞으로 한국이 될 것이다.

〈전술적 유화 공세의 배경〉

북한은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거쳐, 7월 초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강경 공세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핵무기 보유 고수, 농축우라늄 개발 공식화,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정상화, 미·북 군축회담 개최, 6자회담 거부 및 미·북 양자회담 개최 요구 등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 공세는 주변국의 일치된 거부에 직면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6월 1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이다. 북한은 7월 이후 추가적인 공세는 자제하고, 이제까지의 성과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가운데, 정세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술적 조치를 시작했다.

그러한 조치는 전술적 유화 공세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술적 유화 공세란 자신의 전략 입장은 바꾸지 않고, 상대방을 자신의 전략구도로 유도하기 위해, 전술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심성, 회유성 양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8월 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미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대-북 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8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조선신보는 8월 17일 "북남교착타개의 돌파구"라 평하였다. 북한은 또한 최근 중국과의 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전술적 유화 공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적 유화 공세의 목적〉

이는 수세적 목적과 공세적 목적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세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결의 1874호 등 그간 도발에 대한 주변국 및 유엔 회원국의 대북 압박 공세의 예봉을 회피한다.

둘째, 한-미-일-중-러 사이에 이견을 조장하여 북한 압박을 위한 5자 단일 대오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유엔 결의 1874호 이행 등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편다.

셋째, 한국 내부에서 대북 온정적 여론과 우리정부 대북정책에 비판 여론을 증가시켜,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방해한다.

공세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임을 기정사실로 한 바탕에서 북한문제 관련 국제관계 및 협상구도가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둘째,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 위에서 미·북협상을 재개한다. 이에는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북·미 양자회담 개최가 포함된다.

셋째,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 위에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및 남북관계를 재개한다. 전술적 유화공세를 펴는 데 있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가장 다양한 수단을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설정하고, 앞으로 이에 집중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 위에서 다자회담 재개한다.

〈정세 전망〉

앞으로 정세의 기본은 전략적 대치가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전술적 유화에 주력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도 일정 부분에서 전술적 유화로 화답할 것이다.

■ 미·북관계

미국은 당분간 대북제재를 전력 추진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 다시 말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던 틀로 북한을 다시 불러들여,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협상을 전개한다는 것을 목표로 견지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여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협상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견지할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상대방의 구도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북한이나 표면상 항상 대화 용의를 표명할 것이다. 물론 이면 압박이나 협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북한은 유화에 주력한다면, 미국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화 용의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미·북 양자의 전술적 유화 공세로 관계 개선의 국면이 곧바로 대두할 것 같은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양자간 전략적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징후적 관계 개선을 넘어서 문제 해결성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시간은 미국에 더 많다. 미국은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단중기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생존 여건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 남북관계

전술적 유화 공세는 한국을 상대로도 밀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문제는 불문한 채, 한국의 정부와 민간에 대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적극 표명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격적 대북지원을 시작하는 전제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전술적 유화 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주요 도전으로 제기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입장을 의미있게 바꾸지 않는 경우, 북한당국은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민간을 상대로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자 시도할 수 있다. 그 목적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정부와 내부 여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을 벌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전략적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술적 유화에 대해 전술적 유화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술적 유화를 위해 북한은 대남 도발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대문을 어느 정도 열어야만 한다. 이것이 한국에게 대내외 상황을 안정시키며, 현상 변경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전략적 대치와 전술적 유화가 공존하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술적 유화는 불안정하지만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고, 위험의 측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에 비해 과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이 한계와 위험을 잘 관리한다면, 공동 이익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